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김 현 아†

서울사이버대학교

조 영 아

상지대학교

김 연 희

대구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기존도구의 고찰, 전문가 면담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특성을 드러내는 문항을 추출하였다. 통일부 하나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10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대상은 하나원과 전국의 지역사회 북한이탈 청소년 196명이었다. 이들의 반응태세를 반영하기 위해 Marlowe-Crowne의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상관계수를,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HSCL-37,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와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한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적응유연성 수준(저, 중, 고)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불안, 우울, 위기)집단 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는 13문항의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 3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설명변량은 60.24%이었다. 적응유연성 전체에 대한 Cronbach α 계수 신뢰도는 .88, 반분 신뢰도는 .86이었다. 자존감과 .57의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적응유연성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HSCL-37과는 .32의 부적 상관을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18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적응유연성 수준(고, 중, 저)에 따른 정신건강(불안, 우울, 위기, HSCL-37 전체)과 문화적응스트레스(문화충격, 차별,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적응유연성 척도와 정신건강,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에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주제어 :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 척도, 자존감, HSCL, 문화적응스트레스

* 본 연구는 2009년 (재)무지개청소년센터 용역과제의 일부분을 수정,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93-15

Tel : 02-944-5025, E-mail : haha6082@hanmail.net

문제제기

2011년 12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3,000명에 도달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대상)인 만 9세~24세 청소년은 전체 입국자의 약 15.7%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 2010년 11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1,700명 중 1,417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연령층은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과반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통일부 내부자료). 또한 김영우(2007)가 입국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중도포기 또는 입학 자체를 포기한 학령기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의 편견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응, 사회적지지망으로서 열악한 가족관계, 학업문제, 취업문제, 경제문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역경과 남한입국 이후의 적응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불안, 우울(양계민, 황순택, 2008), 비행이나 일탈 행동,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6)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 백혜정, 길은배, 윤진인과 이영란(2006)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준비도, 사회적응 및 심리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 죄책감의 정도, 외상경험의 정도, 남한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의 정도, 남한 친구와의 친밀정도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었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심리적응에서 비롯된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적응유연성은 ‘심각한 외상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여주는 개인의 역동적인 과정’(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적응유연성은 새로운 문화나 이주 후 통합과 관련된 생존기술이기도 하다(Young, 2004). 외상이나 이주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개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적응유연성 개념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적 구성의 적절성과 문화적 민감성을 갖춘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화를 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면 적응유연성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해리(2007)의 경우 적응유연성을 인지적(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정서적(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의지적(희망과 목표, 낙관주의, 영적(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하위요소로 분류한다. 기존의 청소년 적응유연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적응유연성 요소는 강인성(Bandura, 1989; Wagnild & Young, 1993; Hutton, 2003; Bonanno, 2004), 긍정적 자기이해(김동희, 2003; 박현선, 1998;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이해리, 조한익, 2005), 꿈과 목표(김정득, 2002; 이해리, 조한익, 2005), 친밀감(김동희, 2003) 등이다. 그 밖에도 부모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김정득(2002)의 연구에서는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 미래지향성, 독립성/위기대처 능력,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는 계획성, 자기 유능감, 통제감, 책임감, 대인관계 기술, 가족 및 사회 환경 요인이 적응유연성

의 구성요인이었다. 또한 이해리와 조한익(2005)의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에서는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이 구성요인이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적응유연성 척도가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icchetti와 Rogosch(2002)는 적응유연성 모델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소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문화적 규범에 따라 차이가 있다(p.14)’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적응유연성에 있어서 성공적인 적응의 기준이 중요한 개념으로 그 기준은 문화에 따라 아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측정도구의 제작과 선정 시에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문화에 따라 적응유연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한다(Gilgun, 2002).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들어 다문화 청소년(박순희, 이주희, 2009)이나 북한이탈 청소년(김윤나, 2008; 김은경, 2008; 김형태, 2010; 박정순, 2008)과 같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의 긍정적 대처과정으로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성인위주(김현아, 김성희, 2007; 백진주, 2009; 정선주, 2008), 문화적응(김윤나, 2008; 김은경, 2008; 김형태, 2010; 박정순, 2008)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신건강이나 위기행동과 같은 정신 병리적 기준을 포괄한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박순희와 이주희(2009)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으로 개인적 보호요인(용감한 대응, 희망, 정신적 시각), 가족 보호요인(가족의 분위기, 가족지지와 자원), 사회적 보호요인(건강 자원과 사회통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

만 북한이탈 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과는 달리 가족이 해체된 채로 남한에 입국하거나, 부모 없이 단독으로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내부자료). 따라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대부분의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지지와 관련된 적응유연성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남북분단이라는 한계를 간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는 환경적 맥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처기술과 관련된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이주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은 남한사회 적응기간과 상관이 높은 바(금명자 외, 2004), 개인내적인 특성보다 남한정착 기간이라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적응지표이다. 이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할 때는 이렇듯 쉽게 특성이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외에 정신 병리적 변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Radke-Yarrow와 Brown(1993)의 적응유연성 결과모델에서는 적응유연성을 어떠한 병리적 진단도 받지 않고 진단의 기준에 달하는 경계선에도 있지 않는 특성으로 본다. 본질적으로, 적응유연성은 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신 병리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채송희(2009)가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과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도 남한사회 적응과정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았고(강효림, 2007), 내재적 문제행동인 우울, 불안

이외에도 자살충동과 같은 외현화적 문제행동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목혜연, 2007). 그만큼 북한이탈 청소년은 새로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고, 학업, 교육,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가지며, 문화적 충격과 변화된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나 외현화 행동에 노출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변별 타당도로서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김소정, 송하나, 2011; 송원영, 리난, 2008; 임수진,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박민서, 2011), 시설 거주 청소년(이안영, 김진이, 2006), 성 학대 피해청소년(권해수, 2002; Cicchetti & Garmezy, 1993; Moran & Eckenrode, 1992) 등에서 입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 척도의 수렴타당도로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적응유연성 척도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반영한 척도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Keller, 2003).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보다 바른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태세로서, 당연히 통제되고 그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Nederhof, 1985).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심리적 증상에 대해 긍정적 왜곡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볼 때(김현아, 전명남, 200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관련성을 입증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검태도를 반영한 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부정 문항에 익숙하지 않고, 문항이 길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

에 가능한 긍정적 진술문의 짧은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채정민, 2006). 본 연구에서는 Radke-Yarrow와 Brown (1993)의 적응유연성 결과모델을 근거로 하여 탈북 후 남한사회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 병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유연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정신 병리나 문제행동을 경험하지 않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보호요인을 이해하여 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타당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예비조사에 응답한 대상은 총 107명으로 통일부 하나원의 북한이탈청소년으로 남자 40명(37.38%), 여자 67명(62.62%)이었고 평균 연령은 19.27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원 및 지역사회(서울, 경기, 대구) 북한이탈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25세 이

상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자 4명을 제외한 196명을 통계처리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남자 89명(45.4%), 여자 106명(54.1%), 무응답 1명(.5%)이었다. 하나원 39명(19.9%), 일반학교 44명(22.4%), 한겨레학교 25명(12.8%), 대안학교 50명(25.5%),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청소년 35명(17.9%), 무응답 3명(1.5%)이었다.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연령범위로 10세에서 23세까지의 북한이탈청소년이었는데, 평균연령은 18.03세(표준편차 2.42)이었다. 남한거주 기간은 1년 이하가 59명(30.1%), 1-3년 미만 53명(27.0%), 3년-5년 미만 41명(20.9%), 5년 이상 23명(11.7%), 무응답 20명(10.2%)이었고, 무연고 청소년은 16명(8.2%), 가족 동반 청소년은 177명(90.3%), 무응답 3명(1.5%)이었다.

연구 절차

예비문항 작성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서 작성한 기존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항을 제외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34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북한이탈청소년 담당 교사 2명(대안학교 교사 1명, 통일학 박사과정 1명), 심리 전문가 2명(임상심리 박사과정 1명, 상담심리 석사 1명)의 총 4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6세였고, 북한이탈청소년을 가르치거나 상담해온 경력은 평균 6년 이상이였다. 심층면담 내용 중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련하여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며, 북한이탈청소년 전문가 심층면담 과정에서 4명 중 2인 이상이 일치를 보였던 2문항(“목표가 뚜렷하다.”,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을 포함시

켰고, 이 과정에서 문항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항들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18문항을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예비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화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문항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2009년 4월 26일에서 6월 2일에 걸쳐 작성된 1차 예비문항을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1명, 남한생활경험이 거의 없는 정부기관 입소 청소년 4명(재북 학력: 소학교 졸업, 고등중 5년 중퇴, 무학(중학교 교육 3년, 7년)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도를 검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작시기, 남한 언어 이해도가 다른 북한이탈청소년이 각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제3국 체류국가에서의 교육 경험이 대부분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 이해가 어려웠고 이를 통해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의 경우, 추상적인 꿈과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잠잘 때 꿈인가?’라는 질문이 많아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분석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과 이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본 조사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인 Cronbach α .9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여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예비조사를 결과에 따라 1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중 강인성 6문항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고, 긍정적 자기의 하위 문항이 강인성을 설명하는 특

성과 비슷하여 요인이 겹치는 등 긍정적 자기와 강인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바, 긍정적 자기 요인 자체를 모두 삭제하였다. 대인관계 문항 중 ‘닭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와 ‘힘들 때 나를 걱정해주며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인관계 요인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하고, 사회적 지지의 특성에 가까워 삭제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하위요인은 타인과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친밀감 하위요인으로 변경 후 친밀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쉽다’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로, ‘여러 모임에 잘 참여 한다’는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는 ‘나는 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와 같이 각각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친밀감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나는 친한 사람들이 많다’, ‘친한 사람과 마음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의 2가지 문항을 추가하였다. 목표의식의 경우, ‘나는 중요한 목표가 생기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다’의 문항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두 요인에 함께 요인 부하량에 걸려 ‘목표가 생기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 결과 분석

본 조사에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검사 신뢰도를 고려하여 내적 일관성을 낮추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단, 이 기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내용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 부하량과 적절한 요인 구조를 보이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구조에 포함되어 있고 하위 요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 문항 중 내용타당도 결과 18개의 최종 문항이 선정되었고, 문항추출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가 1이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들을 특정한 요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2개 요인 이상인 동시에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경우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요인의 구조와 안면타당도, 요인에 할당되는 문항수를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즉, 가능한 요인에만 부하가 되도록 2개 이상에 부하될 경우에는 해당 요인의 부하량이 다른 요인에의 부하량보다 최소한 .20이상은 차이가 나도록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5문항이 삭제되었는데, 먼저 ‘나는 내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30이하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삭제하였고,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진다’는 2개 요인 이상인 동시에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삭제하였다. 적응유연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요인의 구조와 안면타당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기로 한 1문항은 ‘어떤 방해물을 만나더라도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로 총 13 문항이 최종척도에 포함되었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처리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내용 타당도를 위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의 α 계수, 문항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를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Pearson 상관계수,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주축요인,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한 집단 간 차이는 적응유연성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HSCL-37,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실시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Scheffé를 사용하여 사후개별비교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로 처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한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17.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 검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보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Reynolds(1983)의 단축형 Marlowe-Crowne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8개의 부정문항과, 5개의 긍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이 잘 되는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 ‘나는 항상 예의 바르며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렇다’와 같이 자신을 좋게 나타내 보이는 것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피검사자가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다소 고의적이고도 부정적하며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사소한 부정적 사고나 결점들을 부인하여 자신을 좋게 보이려하는 성향으로 점수의 과도한 상승은 대개 방어적인 검사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3, 5, 8, 9, 10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75이었다.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은 Hopkins Symptom Checklist-37(Mollica, Wyshak, Marneffe, Khuon, & Lavelle, 1987)을 사용하였다. HSCL-37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나 난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HSCL-37은 우울 15문항과 불안 10문항, 위기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형태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척도는 우울 15문항(4, 6, 8, 9, 11, 13, 15, 16, 18, 20, 21, 22, 23, 24, 25) 불안 10문항(1, 2, 3, 5, 7, 10, 12, 14, 17, 19)로 구성된 내현화 척도 25문항, 외현화 문항(3, 4, 7, 8, 11, 14, 18, 21, 25, 28, 34, 37) 12문항 총 3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까지 1-4점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난민청소년 3,890명을 대상으로 다중언어 타당도 검증을 한 Bean(2006)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 적응스트레스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 김현아, 조영아, 김유진, 이겨레(2009)가 개발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질감, 문화충격, 차별, 주변화, 향수 등의 5가지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매우 그렇다 4’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값은 .85이었다.

연구결과

타당도 검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들은 고유치가 모두 1 이상이었으며, 이들 요

표 1. 13문항 적응유연성 척도의 요인형질 및 요인 부하량

(n=196)

문 항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
7.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806	.437	.636
8. 나는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낸다.	.704	.360	.473
12. 나는 스스로 어려움을 잘 견디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95	.532	.327
13. 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꿋꿋이 딛고 일어서는 성격이다.	.717	.495	.460
15.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하다.	.715	.483	.353
17. 나는 친한 사람들이 많다.	.501	.837	.365
14. 나는 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	.403	.657	.405
18. 친한 사람과 마음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471	.570	.315
11. 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편하다.	.399	.544	.269
6. 나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477	.342	.773
5. 나는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60	.321	.667
10. 목표가 생기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474	.479	.557
3. 남한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303	.397	.499
고유치(Eigenvalue)	5.504	1.232	1.095
설명변량	42.338	9.478	8.426
누적변량	42.338	51.817	60.243

인들이 전체 변량의 60.24%를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40~50%의 설명변량을 넘어야 요인구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충족하였다(Gorsuch, 1983). 13개에 문항에 대해 주축요인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별 구성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5.504, 설명변량은 42.338%이었고 도전이나 역경을 잘 극복하고 꿋꿋이 견뎌내는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강인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1.232, 설명변량은 9.478%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사귀고 친밀감을 느끼는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친밀감’이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요인은 고유값이 1.095, 설명변량이 8.426%,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이 많아 ‘목표의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응유연성 척도의 이론적 구조가 북한이탈 청소년 표본의 경험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개요인 연구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문항수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인 χ^2 는 137.92이고,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χ^2 는 사례수가 많은 경우 거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홍세희, 2001),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RMSEA, TLI, CFI, NFI를 고려하였다. 모형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로 Steiger(1980)가 제시한 수용할 만한 수준의 부합도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FI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좋은 부합도의 기준인 .90 이상이었으나, TLI, NFI는 .90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RMSEA 지수에서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지만 그 이외 적합도의 지수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많은 자료에서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며, 측정변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항목묶음(parceling) 방식이 제시되기도 한다(Little, Cunningham, Sahar, & Widaman, 2002; 김영아 등, 2009 재인용). 반면 문항수준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경우 판단 근거로 RMSEA를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검사의 미국판 및 한국판 검사가 그러하다(Achenbach & Rescorla, 2000; 김영아 등, 2009). 또한 부합지수 가운데 표본 크기의 영향에 덜 민감한 CFI와 TLI 지수가 표본크기에 보다 민감한 NFI 지수보다 양호한 점은 보다 큰 표본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부합지수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측정변수들에 대한 경로계수 및 유

표 2. 적응유연성 척도의 3개 요인모형의 적합도

χ^2	df	RMSEA	CFI	TLI	NFI
137.929	62	.079	.920	.883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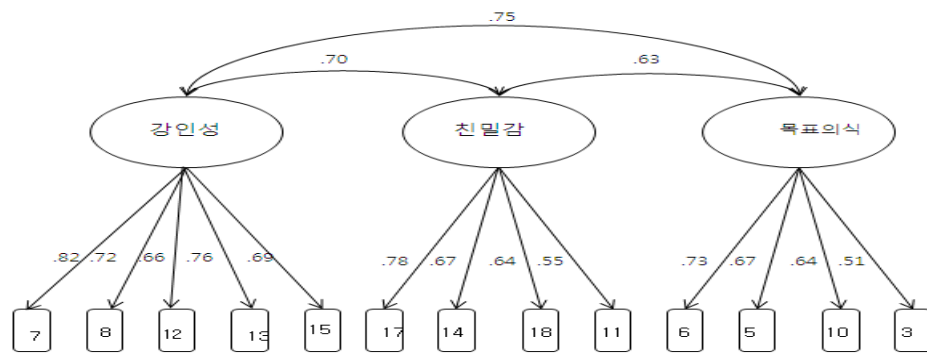


그림 1. 3요인 모형의 검증

의도 검증결과 모든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51~.82로 측정변수에 의해 잠재변수가 잘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3요인구조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인 간 상관

요인분석 결과 확정된 3개 요인에 대한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응유연성 전체와 각 하위 요인 간 상관은 .803~.875로 각 하위 요인인 전체 적응 유연성과 관련이 높았다.

반면 하위 요인 간 상관은 .483~.593으로 하위요인 간에는 변별력을 갖춘 양호한 척도로 해석된다.

관련 척도와의 상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에 대한 수검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수렴타당도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적응유연성 척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HSCL-37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에 대한 수검태도를 살펴본 결과, 적응유연성 전체와 정적 상관($r = .197, p < .0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성 하위 척도 중 강인성과 상관이 높았으며, 친밀감과 목표의식은 경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3. 적응유연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

요인	적응유연성 전체	1	2
적응유연성 하위요인			
1. 강인성	.875**	-	
2. 친밀감	.823**	.559**	-
3. 목표의식	.803**	.593**	.48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적응유연성 척도와 관련 척도와의 상관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	적응유연성 전체
사회적 바람직성	.194**	.155*	.141*	.197**
자존감	.470***	.455***	.524***	.570***
HSCL-37 전체	-.252**	-.321**	-.326**	-.326**
HSCL-37 하위요인				
HSCL-우울	-.234**	-.319**	-.281**	-.331**
HSCL-불안	-.180*	-.220**	-.266**	-.261**
HSCL-위기	-.132	-.122	-.189*	-.173*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	-.103	-.161*	-.196**	-.179*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위요인				
문화적 이질감	-.151*	-.171*	-.163*	-.193**
문화충격	-.169*	-.178**	-.174*	-.207**
차별	-.070	-.192**	-.151*	-.161*
향수	.087	.063	.015	.070
주변화	-.021	-.051	-.167*	-.088

* $p < .05$ ** $p < .01$ *** $p < .001$

적응유연성 척도와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응유연성 척도와 자존감 척도 간($r = .570, p < .001$)에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적응유연성 척도 하위요인인 강인성($r = .470, p < .001$), 친밀감($r = .455, p < .001$), 목표의식($r = .524, p < .001$) 모두에 있어서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사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 전체 및 적응유연성 하위 요인인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적응유연성 척도가 수렴 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응유연성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HSCL-37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적응유연성 전체와 내현화 전체 척도와는 -.2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적응유연성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는 -.194~.265로 모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적응유연성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응유연성 전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와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적응유연성 척도 하위요인 중 친밀감, 목표의식 영역에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신뢰도 검증 결과

적응유연성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신뢰도

최종적으로 선정 한 총 13문항에 대해서 196명을 대상으로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와 반분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척도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8이었으며, 3개 하위요인 각각의 Cronbach의 α 계수는 .73~.85로 나타났다. 그리고 Spearman-Brown 공식으로 기우반분 신뢰도계수를 산출한 결과, 적응유연성 척도 전체는 .86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Spearman-Brown 계수는 .7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응유연성 척도 및 각 하위요인이 적절한 신뢰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유연성 척도의 문항제거 시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적응유연성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제거 시 척도 전체와 요인의 Cronbach의 α 계수를 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확정된 3개 각 요인과 그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총점 간 상관(적률상관 계수), 문항제거 시 전체 신뢰도(Cronbach의 α 계수), 문항제거 시 요인 신뢰도(Cronbach의 α 계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문항-총점 간 상관도가 .30이상을 보여 각 문항이 하위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문항으로 밝혀졌고, 전체 신뢰도와 요인 신뢰도 각각이 모두 그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든 문항이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물론 각 그 문항이 해당하는 요인의 신뢰도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적응유연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실제로 더 적응유연 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집단 간 수준을 살펴볼 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적응유연성의 측정은 자기보고식의 측정 이외에 Herman-Stahl과 Petersen(1996)의 집단구분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잘 적응된 집단, 탄력적 집단 및 취약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집단구분 방식은 취약한 집단과 잘 적응된 집단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응유연성의 평균값은 50.58($SD = 7.45$)로 이들의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적응유연성 수준을 구분하였을 때 하위 25%는 45.583, 중간 50%는 49.761, 상위 75%는 55.904이었다.

표 5. 적응유연성 척도의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신뢰도

(n=196)

신뢰도		문항 수	M(SD)	Cronbach의 α 계수	반분 신뢰도
적응유연성 하위요인	1. 강인성	5	19.34(3.30)	.85	.86
	2. 친밀감	4	15.01(3.03)	.76	.75
	3. 목표의식	4	15.95(2.52)	.73	.72
적응유연성 전체		13	50.57(7.45)	.88	.86

표 6. 문항 제거 시 적응유연성 척도 신뢰도

문항번호	문 항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요인1: 강인성(Cronbach의 α 계수 .846) 전체 Cronbach의 α 계수 .88			
7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잘 처리해나갈 수 있다.	.702	.803
8	나는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낸다.	.624	.823
12	나는 스스로 어려움을 잘 견디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14	.826
13	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꿋꿋이 딛고 일어서는 성격이다.	.693	.804
15	다른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하다.	.644	.817
요인2: 친밀감(Cronbach의 α 계수 .757) 전체 Cronbach의 α 계수 .88			
17	나는 친한 사람들이 많다.	.653	.649
14	나는 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	.563	.696
18	친한 사람과 마음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536	.712
11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다.	.480	.737
요인3: 목표의식(Cronbach의 α 계수 .731) 전체 Cronbach의 α 계수 .88			
6	나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618	.611
5	나는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55	.651
10	목표가 생기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본다.	.497	.686
3	남한에서 꼭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있다.	.428	.726

이때 적응유연성 하위 25%에 해당되는 45.58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낮은 적응유연성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상위 75%에 해당되는 55.90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높은 적응유연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HSCL-37 척도에서의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정신건강 척도의 점수는 $F(2, 193) = 10.574, 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é 사후검증에서 낮은 적응유연성 집단과 높은 적응유연성 집단, 중간 적응유연성 집단과 높은 적응유연성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적응유연성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불안, 우울, 위기를 측정하는 HSCL-37 척도에서 적응유연성이 낮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중간 정도인 북한이탈청소년 보다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으로써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시켜주었

표 7.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관련 척도에서의 차이검증

적응수준	집단분류	적응유연성수준	N	M	SD	F	p	post-hoc
HSCL-37 전체	저 적응유연성		52	60.173	13.345	10.574	.000	저>고, 중>고
	중 적응유연성		96	55.395	12.683			
	고 적응유연성		48	48.187	13.670			
HSCL-37하위요인 HSCL우울	저 적응유연성		52	39.923	7.267	9.301	.000	저>고, 중>고
	중 적응유연성		96	37.083	9.624			
	고 적응유연성		48	32.166	9.766			
HSCL불안	저 적응유연성		52	16.673	5.143	5.373	.005	저>중, 저>고, 중>저
	중 적응유연성		96	14.822	3.371			
	고 적응유연성		48	14.041	4.561			
HSCL위기	저 적응유연성		52	3.576	4.464	3.516	.032	중>고
	중 적응유연성		96	3.489	3.473			
	고 적응유연성		48	1.979	2.098			
문화적응스트레스 전체	저 적응유연성		52	27.615	6.779	3.422	.035	저>고
	중 적응유연성		96	26.093	7.429			
	고 적응유연성		48	23.729	8.258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위요인 문화적 이질감	저 적응유연성		52	5.865	2.657	2.778	.065	
	중 적응유연성		96	4.906	2.699			
	고 적응유연성		48	4.812	2.348			
문화충격	저 적응유연성		52	5.884	2.054	4.602	.011	저>고, 중>고
	중 적응유연성		96	5.500	2.651			
	고 적응유연성		48	4.458	2.414			
차별	저 적응유연성		52	4.692	1.904	3.962	.021	저>고
	중 적응유연성		96	4.166	2.034			
	고 적응유연성		48	3.604	1.734			
향수	저 적응유연성		52	6.961	2.649	.524	.593	
	중 적응유연성		96	7.406	2.404			
	고 적응유연성		48	7.166	2.800			
주변화	저 적응유연성		52	4.211	1.943	.832	.437	
	중 적응유연성		96	4.114	2.396			
	고 적응유연성		48	3.687	2.022			

다. 적응유연성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는 한 방법으로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에 미치는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에서의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정신건강 척도의 점수는 $F(2, 193) = 3.422, p <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é 사후검증에서 낮은 적응유연성 집단과 높은 적응유연성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적응유연성이 높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문화적 이질감, 문화충격, 차별, 향수, 주변화를 측정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에서 적응유연성이 낮은 북한이탈청소년보다 높은 점수 분포를 보임으로써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시켜주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적응유연성 척도의 연구결과는 기존 청소년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제시된 강인성(Bandura, 1989; Wagnild & Young, 1993; Hutton, 2003; Zakin, Solomon & Neria, 2003; Bonanno, 2004), 목표의식(김정득, 2002; 이해리와 조한익, 2005; Bandura, 1989; Neiger, 1992; ODR, 1994), 친밀감(김동희, 2003; Ahn, 1991; Wilson, 1995) 요소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이나 한국의 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Hutton (2003)의 청소년용 적응유연성 척도에서 구성요인은 인내심, 협동심/의미, 목표지향, 자기반성, 성취동기, 자기 효능감, 독립성/존중의 7개 요인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강인성 요

소는 인내심과 목표지향 및 성취동기 요소는 목표의식과 유사하였다. 미국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특성으로 나타났던 자기반성이나 독립성/존중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는 강인성과 목표의식이라는 인지적 적응유연성 요소와 친밀감이라는 개인-환경 간 대처기술이 적응유연성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에는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에서 나타났던 정서적 요인과 자기와 관련된 요인은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 시기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문화적 변화를 통해 정체감 혼미를 함께 경험하면서 자기와 관련된 적응유연성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박순희와 이주희, 2009)와 비교해볼 때 개인내적 차원, 가족관련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자아정체성, 의사소통 기술, 문화수용성, 가족의 지지 및 상호작용, 또래관계 및 지지, 교사의 관심과 지지 6개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의 하위 요소인 친밀감과 의사소통 기술이 유사하였고,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를 겪지 않는 것으로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개인내적인 요소를 보다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김윤나(2008)의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유연성 척도와 비교해볼 때 강인성은 강인유연성에 목표의식은 인지와 의지유연성에 또래유연성과 지지유연성은 친밀감과 유사하였고,

영적 유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유연성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드러난 강인성은 강인성이 이민자와 같이 문화가 바뀐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요인이거나(Kuo & Tsai, 1986; Walton, 1992) 회복요인으로(Mansell, 1981) 작용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공감능력이나 사회성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이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Brislin(1986)의 연구나 친밀감이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구성요소(김동희, 2003)라는 연구결과 또한 친밀감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하위 요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유연성과 자존감 간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는 자존감, 또래관계, 부모유대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형태(2010)의 연구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자존감과의 상관이 있다는 기존연구(김소정, 송하나, 2011; 송원영, 리난, 2008; 임수진, 한규석, 2009)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교사의 무관심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류재중(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개인적 유능성으로서 자존감을 중요한 개인변수로 파악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이상준, 2006; Blum, 1998), 본 연구에서 추출된 수렴타당도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통해 이들의 자존감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HSCL-37 우울, 불안, 위기와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고, 문화

적응스트레스와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먼저 적응유연성 하위척도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HSCL 하위요인 중 우울과 불안은 적응유연성 하위 요인들과도 모두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위기요인과는 목표의식에서만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북한이탈 청소년은 쉽게 우울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위기행동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성질환아동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 척도가 소아용 우울검사인 CDI와 부적상관을 보였다는 김동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강인성이 높은 극도의 전쟁 외상경험자는 SCL-90의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관계 민감성 점수가 낮았다는 Maddi(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울증이 적응유연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적응유연성 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Randall(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 간에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울과 적응유연성간의 상관이 있고(Dumont & Provost, 1999) 특히 우울에 대한 보호기능을 하는 것은 사회적지지, 대처방식, 자존감, 사회적 활동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향수와 주변화는 적응유연성 척도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향수와 같은 하위요인은 정서적 특성과 관련이 되는데 반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요소는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과 같은 인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적인 대처전략과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과 자신들의 남한입국으로 인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들의 인권탄압과 처벌우려와 관련된 향수(‘중
 종 고향집이나 고향 친구에 대한 꿈을 꾸다’,
 ‘고향과 고향사람들이 그리다’, ‘고향 생각이
 나서 힘들다’)나 주변화(‘나는 여기 오지 않았
 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두려움 때문
 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살려고 한다’)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인내적 적응유연 척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라우마
 경험 집단의 적응유연성이 18세 이하의 경우
 상관이 없었지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집단에
 서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Peddle (2001)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에서의 표집집단이 만24세까지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응유연성
 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김윤나
 (200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
 레스와 정신건강은 적응유연성에 관여하는 중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응유연
 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신건강 간에 구성
 타당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
 의 적응유연성 척도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타당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사회적 바람직성과 적응유연성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경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이 개인내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향수와 주변화와 관련된 문화적응스
 트레스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사정(査定)할 때
 는 강인성, 친밀감, 목표의식의 특성을 합한
 전체 적응유연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특성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른 특성의
 점수가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북한이
 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사정한 후 각 특성
 별로 점수를 파악하여 대상의 강점과 상대적
 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최대한 북한이탈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척도를 개발하
 려 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설문에 협
 조적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도 있어 일반화에는 무
 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신 병리적
 인 특성을 보완해주는 척도로 개발하였기 때
 문에 일반적인 적응유연성 척도에 비해서 전
 체 문항 수가 적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연구대상 수가 요인분석의
 최소 인원 200명(Crocker & Algina, 1986) 이하로
 요인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 정신건강,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적응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규학교 재학 및 학업적응에 이르기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첫째, 적응유연성 집단추출 방법으로 우울
 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장애로만 구분하고
 있는 표집편향(sampling bias)에서 벗어나 외현
 화 문제행동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발달 정신 병리학적 조망에서 탄력성 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우울증상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를 기초로 탄력성 집단을 추
 출하는 Herman-Stahl과 Petersen(1996)의 집단구
 분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위기행동과 같은 외
 현화 문제행동을 차단하는 요인으로써 적응수
 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수검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검사를 개발하였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봄으로써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병리로부터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입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적응유연 행동과 관련된 타인 관찰자용 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하고 학교상담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적응유연성이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한정착기간, 문화적응 과정, 상담이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과정 중 어떻게 변화해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 추적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효림 (2007).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해수 (2002). 성 학대 피해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동희 (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소정, 송하나 (2011). 재중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219-234.
- 김연희, 김현아, 조영아, 김유진, 이겨레 (2009).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평가도구 개발 연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7-136.
- 김영우 (2007).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나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경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득 (2002).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김성희 (2007).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상담학 연구, 8(1), 63-83, 한국상담학회.
- 김현아, 전명남 (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 129-160.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김형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및 적응유연성 영향에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 연구, 17(9), 27-59.
- 류재중 (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심리적 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서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93-402.
- 박순희, 이주희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측정도구의 개발. 청소년학연구, 16(6), 103-134.
- 박정순 (2008). 사회적 지지가 탈북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백진주 (200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원영, 리 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9(2), 333-358.
-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 (2001). 부모 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 33-53.
- 이상준 (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안영, 김진이 (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7(2), 159-18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해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 연구, 16(2), 161-206.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413-427.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 (2006).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경기도 교육청.
- 정선주 (2008). 새터민의 적응유연성과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송희 (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정민 (2006). 새터민의 정신건강 지원에 있어서 심리검사 활용 유의점. 서울: 통일부 2006년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위한 심리 워크숍.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한국 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 Manual for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hn, R. L.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ashington resilience scal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4457B.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lum, R. W. (1998). Healthy youth developments as a model for youth health promotion: A review.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 368-375.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American Psychologist*, 59, 20-28.
- Brislin, R. W. (1986). *Inter-cultural interactions*(p. 59). Beverly Hills: Sage.
- Cicchetti, D., & Garmezy, N (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497-502.
- Cicchetti, D., Rogosch, F. A. (2002).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adolesc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6-20.
- Crocker L. & Algina, U.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Retrieved February, 2000 from ProQuest database, ISSN: 0047-2891.
- Gilgun, J. F. (2002). Completing the circle: American Indian medicine wheels and the promotion of resilience of children and youth in car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6(2), 65-84.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Erlbaum.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649-665.
- Hutton, S. P. (2003).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a scale designed to measure resiliency i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Fresno Campus.
- Kuo, W & Tsai, Y (1986). Social networking, hardiness and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133-149.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and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 Luthar, S. S., Cicchetti, 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ddi, S. R. (1999). The personality construct of hardiness: Effects on experiences, coping and strain.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1, 83-94.

- Mansell, M. (1981). Transcultural experience and expressive response. *Communication Education*, 30, 93-108.
- Mollica, R. F., Wyshak, G., de Marneffe, D., Khuon, F., & Lavelle, J. (1987). Indochinese versions of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25: A screening instrument of the psychiatric care of refuge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497-500.
- Moran, P. B., & Eckenrode, J. (1992). Prote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 victi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6, 743-754.
- Nederhof, A. J. (1985). Methods of copying with social desirability bias: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263-280.
- Neiger, B. L. (1992). *Resilient reintegration: Use of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52, 1937.
- ODR, Inc. (1994). *The personal resilience profile handbook*. Atlanta, GA: Author.
- Peddle, N. A. (2001). *Forgiveness in recovery/resilience from the trauma of war among a selected group of adolescents and adult refug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uman and Organizational Systems.
- Radke-Yarrow, M., & Brwon, E. (1993).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in children of multiple-risk famil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81-592.
- Randall, F. (2004).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behavioral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s measured by depression and resili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Reynolds, W. M. (1983).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ger, J. H. (1980). Tests for comparing elements of a correlation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87, 245-251.
-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 165-178.
- Walton, S. (1992). Stress management training for overseas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507-27.
- Wilson, J. P. (1995). Traumatic events and PTSD prevention. In B. Raphael, & E. D. Barrows (Eds.), *The handbook of preventative psychiatry* (pp.281-296). Amsterdam, the Netherlands: Elsevier North-Holland.
- Young, L. E. L. (2004). *Resilience in ex-refugees from cambodia and vietn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 Zakin, G, Solomon, Z., & Neria, Y. (2003). Hardiness, attachment style, and long term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sraeli POWs and combat vetera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819-829.
- 원 고 접 수 일 : 2012. 02. 09.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03. 30.
최종 게재결정일 : 2012. 04. 03.

Validation of a Resilience Scale for North Korean Youth in South Korea

Hyuna Kim

Seoul Cyber University

Younga Cho

Sangi University

Yeunhee Kim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Resilience Scale for North Korean Youth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resilience scale of 34 item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resilience theorie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Youth and 4 practitioners working with NK youth. A pilot survey was conducted with 107 NK youth in Hanawon, and factorial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pilot survey reduced the 34 item scale to 18 items. The main survey was administered to 196 North Korean Youth who were made up of 39 youth at Hanawon and 157 youth residing in the communit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resilience instrument was tested with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A PCA yielded a model with 13 items with three 3 factors: 'hardiness', 'ability to form intimacy', 'specificity of goal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strument indicates a high degree of homogeneity among item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strument was .88 and the odd-even reliability was $r = .86$. The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 same construct as tha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construct validity was tested by conducting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the resilience scale scores and Reynolds(1983)'s social desirability, Rosenberg(1965)'s self-esteem, HSCL-37, Kim et al(2009)'s cultural adaptation stress score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HSCL-anxiety($r = -.26, p < .05$), HSCL-depression($r = -.33, p < .05$), HSCL-crisis($r = -.17, p < .05$), cultural adaptation stress($r = -.18, p < .05$),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r = .57, p < .05$)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As another way of verifying the construct validity, the data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resilience scores(high resilient group, middle resilient group, low resilient group) an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level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HSCL scores were verified by performing MANOV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hich support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resilience scale. In conclusion, this instrument demonstrates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proves that it is an appropriate tool to measure resilience in North Korean you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 youth, resilience, resilience scale, self-esteem, HSCL, cultural adaptation stress